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맺음말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맺음말, 487–490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먼저 자기가 보수 개혁주의 진영에서 '진보적'이라는 평을 듣는다고 털어놓는다. 그런데 이 책은 진보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이 책은 성경이 성경에 대해 하는 말을 먼저 듣는 옛 방식, 곧 워필드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스승들의 방식으로 돌아간 책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성경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순환논증이라는 비판에 답한다. 또 성경을 인간의 성찰로 보고 오류를 이성으로 고치려는 최근 복음주의 흐름을 '두 주인'을 섬기는 모순이라고 비판한다. 그런 다음 근본주의자라는 낙인도 감수하겠다고 밝히고, 이 책이 새로 내놓은 생각들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핵심을 말한다. 하나님은 책만 남기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 절별 정리

📜 1. '진보적'이라는 평판

프레임은 이 책이 '주권신학 시리즈' 마지막 권이라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다고 연다. 그는 자기가 속한 보수 개혁주의 진영에서 꽤 진보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인정한다. 이유는 여섯 가지다. 다관점주의를 내세운 것, 교파 분열을 비판한 것, 스승 반틸의 사상을 조심스럽게 고친 것, 현대 예배 음악에 우호적인 것이 그 넷이다. 나머지 둘은 신앙고백서와 역사를 앞세우기보다 성경에서 바로 신학을 세우자고 주장한 것, 그리고 교파 사이의 교리 싸움을 부정적으로 본 것이다. 그는 이 목록을 변명하지 않고 담담하게 늘어놓는다. 이 고백은 다음 절의 반전을 준비한다.

1. 이 책은 주권신학 시리즈 4권, 마지막 권
2. 보수 진영에서 '진보적'이라는 평을 들음
3. 다관점주의·교파 비판·반틸 개정 등이 이유
4. 전통보다 성경 자체에서 신학하기를 옹호
5. 그러나 이 고백은 반전을 위한 준비

>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자기 소개 단락이라 성경 인용 없이 각주로 자기 저서만 밝힘

📜 2. 이 책은 '옛 방식으로의 복귀'다

프레임은 이 책이 진보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요즘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전통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 그들은 성경 자체의 관점보다 역사 속 견해와 요즘 학자들의 견해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성경론을 다룬다. 프레임의 책은 이 흐름과 맞지 않는다. 그는 성경이 계시와 성경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를 먼저 붙잡는 더 오래된 방식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워필드가 대표적으로 쓴 방식이다. 영, 클라인, 스톤하우스, 반틸, 머레이, 클라우니 같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스승들도 이 방식을 썼다. 그는 역사 연구나 현대 해석 연구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그런 연구도 쓸모가 있다고 인정한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라고 말한다.

1. 최근 흐름: 역사·현대 견해로 성경론 논의
2. 프레임: 성경이 스스로 하는 말부터 듣기
3. 워필드와 웨스트민스터 스승들의 방식
4. 역사 연구도 유용하다고 인정함
5.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방법론 선언이라 장절 인용은 없음. 본론(책 전체)에서 성경 구절로 이 방법을 실행했다는

📜 3. 성경으로 성경을 배우면 순환논증 아닌가?

성경이 무엇인지 알려고 성경으로 돌아가면 빙빙 도는 논리처럼 보일 수 있다. 프레임은 이 비판에 두 단계로 답한다. 첫째, 진리를 재는 궁극적 기준을 변호할 때는 누구든 어느 정도의 순환논증을 피할 수 없다. 최종 기준은 그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 변증을 1장, 4장, 8장, 16장, 42장, 부록 C·E, 그리고 『신지식론』 130–133쪽에서 되풀이했다고 밝힌다. 둘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교리를 체계적으로 세우려면 어차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에서 모두 성경을 지식의 최종 원천으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성경론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

1. 궁극적 기준을 변호하면 순환은 피할 수 없음
2. 이 변증은 책 여러 곳에서 반복됨
3. 다른 교리도 모두 성경을 최종 원천으로 삼음
4. 성경론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음

>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논증 근거를 책의 다른 장(1·4·8·16·42장, 부록 C·E)으로 돌림

(없음 — 대신 작가 메모: “최종 기준은 더 높은 기준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절의 핵심 논리)

📜 4. 예수님과 내 이성,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프레임은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안에 '성경론'이라는 가르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진단한다. 복음주의자와 개혁신학을 믿는 이들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며 산다. 영감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을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본 인간의 글 정도로

가려내고 고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프레임은 바로 여기서 모순을 짚는다. 그렇게 되면 주인이 둘이 된다. 예수님을 주로 믿지만 최종 권위는 내 마음의 판단에 두는 셈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지만 나는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각주 7에서 그는 이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다룬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가 무오성(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참되다는 믿음)을 불필요하거나 의심스럽다고 본다. 부록의 N. T. 라이트, 맥고완, 피터 엔즈 서평이 그런 견해를 다룬다. 또 다른 이들은 무오성을 골칫거리로 여기며, 세부 사항을 변호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실재와 구원을 묵상하자고 한다. 프레임은 이 두 번째 마음에는 오히려 공감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무오성을 과장한다는 비난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래도 결론은 분명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참된 것만 말씀하신다. 무오성은 성경에 있는 그분의 말씀이 참되다는 뜻일 뿐이다. 그러니 이 확신이 흔들릴 때는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변호해야 한다.

1. 성경을 '예수에 대한 인간의 성찰'로 보는 흐름
2. 오류는 이성이 고친다 → 최종 권위는 나
3. 예수님과 내 이성, 두 주인이 생기는 모순
4. 무오성 = 성경 속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는 뜻
5. 그리스도 중심 묵상에는 공감, 그래도 변호 필요

> **(저자가 장절을 밝히지 않음) 마태복음 6:24 암시**
> '두 주인' 표현이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함. 저자의 명시적 인용은 아니므로 화면에는 '암시'로 표기

“이것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다.”

📜 5. 근본주의자로 불려도 괜찮다

프레임은 이 문제에서만큼은 진보적 입장에 설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진보적인 견해

것을 알고, 여러 이유로 그렇게 불리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경험상 낙인찍기는 신학 논쟁에서 흔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비난에 무디다고 말한다. 그는 근본주의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그들에게 율법주의(원문 '자유주의'는 문맥상 오식일 가능성이 있음), 세대주의, 반지성주의 같은 약점이 자주 있었다. 그래도 사방에서 공격받으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일에는 충실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 중 많은 이가 더 존경받으려 애쓰는 사람들보다 천국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1. 성경론에서는 진보적 입장에 설 수 없음
2. '근본주의자' 낙인도 감수하겠다
3. 근본주의의 약점을 인정함
4. 그러나 성경을 지킨 충실함은 높이 평가
5. 학계의 존경보다 주님 앞의 충성

>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개인적 입장 표명. 각주 8에서 근본주의자 도널드 풀러턴에 대한 헌사를 소개

📜 6. 반동적이지만 새로운 것도 있다

프레임은 자기 입장이 분명히 '반동적', 곧 옛것으로 돌아가는 쪽이라고 인정한다. 그래도 이 책이 몇 가지 새로운 생각을 내놓았다고 본다. 첫째는 인격적 말씀 모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일로 보는 틀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조, 셋째는 몇 가지 삼관점적 구분이다. 넷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 마음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하려 한 시도이고, 다섯째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다. 그는 논거를 되도록 정확하게 대고, 중요한 문제를 되도록 빨리 다루려 했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인식론적 질문(앎과 확신의 근거를 묻는 질문)을 늘 사고의 맨 앞에 두었다고 밝힌다.

1. 방향은 '옛것으로 돌아가기'

4.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 마음까지의 과정
5.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가 최우선 질문

>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책 전체 기여의 목록이라 인용 없음

📜 7. 하나님은 책만 남기고 떠나지 않으셨다

프레임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마지막에 말한다. 이 책은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상대해야 하는 실재로 진지하게 다룬다. 그분은 모든 역사와 경험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시고, 진리 그 자체이신 절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보증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과 함께 계신다. 이 역할을 빼면 성경론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 한 권 남기고 사라지신 분이 아니다. 매일, 매 순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성경은 더 귀하다. 하나님이 주신 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듣고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건네시는 그분의 인격적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각주 9에서 그는 자기 진영을 향해서도 날을 세운다. 일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정경이 완성되었으니 하나님이 이제 책만 남기신 것처럼 말한다. 프레임은 이를 '개혁주의 이신론'이라고 부른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뒤 손을 떼셨다고 보는 생각이다. 이런 태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일로 줄어든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경험이나 우정을 말하면 개혁신학이 아닌 복음주의, 은사주의, 경건주의라고 매도당한다.

1.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절대 인격
2. 하나님은 말씀을 보증하고 끝까지 함께하신다
3.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매일 우리에게 오신다
4. 성경은 지금 내게 건네시는 인격적 말씀
5. '개혁주의 이신론'을 비판함

> **(저자가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결론 진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함께하신다”는 표현은 본론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 논의를 요약한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만 남기고 없어져 버리신 분이 아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다관점주의(삼관점주의)
같은 진리를 규범(하나님의 법), 상황(세상과 사실), 실존(사람의 마음과 경험)이라는 세 각도에서 함께 보자는 프레임의 방법이다.

인격적 말씀 모델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 소통으로 보는 틀이다. 그 말씀에는 다스리는 능력, 권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

순환논증
결론을 이미 전제로 깔고 증명하는 논리다. 프레임은 최종 기준을 변호할 때는 이것을 완전히 피할 수 없다고 본다.

자율적 이성
하나님 말씀 아래가 아니라 그 위에 서서, 무엇이 참인지 스스로 최종 판단하려는 이성이다.

영감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움직이셔서 그들의 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일이다.

무오성
성경이 단언하는 모든 것이 참되다는 믿음이다. 프레임은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주의

20세기 초 미국에서 자유주의에 맞서 성경의 권위 같은 '근본 교리'를 지키려 한 운동이다. 지금은 흔히 조롱하는 말로 쓰인다.

이신론 / 개혁주의 이신론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뒤 손을 떼셨다는 생각이다. 개혁주의 이신론은 정경 완성 뒤 하나님이 책만 남기고 물러나신 것처럼 신앙을 학문 연구로 줄이는 태도를 가리키는 프레임의 비판적 표현이다.

일반계시·특별계시

일반계시는 자연과 양심과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이고, 특별계시는 말씀(성경)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알리시는 것이다.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 교회가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받는 성경 66권의 목록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론은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하는 말을 먼저 듣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 최종 기준을 변호할 때 생기는 순환은 피할 수 없고, 모든 정통 교리가 성경을 최종 원천으로 삼는다.
- 성경의 오류를 이성으로 고치겠다는 태도는 예수님과 나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모순이다.
- 무오성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참되다”는 뜻일 뿐이다.
-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신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3편 · 성경의 권위 없이 그리스도도 없다 · 다섯 책의 합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